

觀光地住民이 知覺하는 觀光影響에 관한 研究

— 南濟州郡 6個 마을住民의 地緣性을 中心으로 —

張 聖 洙*

目 次

- I. 序 論
- II. 觀光影響 認識에 관한 理論
- III. 研究對象地의 社會·經濟實態 및 觀光動向
- IV. 研究方法의 設計 및 標本의 特性
- V. 實證分析 結果
- VI. 結論 및 示唆點

I. 序 論

1. 研究目的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그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게 마련이다. 삶의 질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自我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규격화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현대인의 생활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공급차원에서의 관광개발은 경제성장이라는 量的 의미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質的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全社會的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관광개발을 관광지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자신의 생활근거지에서 관광으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을 모색하는 計劃家(developer)의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의 대상이 되는 관광지에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관광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 濟州大學校 經商大學 觀光開發學科 副教授

영향의 인식하에 관광개발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관광개발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할 관광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에 대한 인식상태는 관광개발의 成敗를 좌우할 만큼의 비중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도의 경우 관광산업이 지난 30년간 지역발전의 선도산업으로서 커다란 몫을 담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불균형 성장, 자연환경 훼손, 전통문화의 파괴, 미풍양속의 저해 등 부정적인 면에 대한 불만이 교차하는 착잡함과 미묘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각종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피상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둔 토박이들과 근래 이주해 온 마을주민들간의 차별성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을 이른바 「地緣性」(attachment level)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관광지임과 동시에 지역의 특성상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保守性과 土着性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연성에 입각한 관광영향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일반적으로 單數文化社會이자 保守性이 강한 우리나라 관광지의 개발정책수립시에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2. 研究方法 및 範圍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¹⁾

첫째, 관광객에 대한 연구로 이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관광서비스를 위한 수요변화 및 관광객의 동기, 태도, 기대 등이고

둘째, 관광주민에 관한 연구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즉 지역주민들, 관광산업관련 종사자, 지역관광산업의 조직들에 관한 것이 주요 연구과제이며,

셋째, 관광객과 관광주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로 관광객과 관광주민간의 상호 접촉관계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자 접촉의 결과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관광영향」(tourism impact)이란 지역주민의 의식변화와 관련된 범주로 관광 및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주민이 어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1) Alister Mathieson and Geoffrey Wall,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New York: Longman Inc., 1982, p.133.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에 상기한 분류범주와 비교하는 경우 본 연구는 비교적 세번째 범주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이론을 고찰해 보고, 관광지주민들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영향을 地緣性적도에 따라 측정해 보는 것을 주된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또한 남제주군 관내 관광명소가 입지한 6개 垾단위 마을을 지역적 범위로 하고 있으며, 1995년 6월 중에 수집된 橫斷面資料(cross-section data)를 기초로 한 시간적 범위를 갖는다.

한편 연구방법으로서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학적 검증방식을 채택한 가운데 SA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 「켄달」(Kendall)의 타우(tau) 상관관계 검증, t검증 및 一元變量分析(one-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II. 觀光影響 認識에 관한 理論

1. 觀光開發로 인한 地域社會構造 變化

지역사회로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은 해당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다.

세계관광기구(WTO)의 보고서²⁾는 관광영향 가운데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지역내 기존 시설 및 하부구조의 개선, 경제적 편익의 창출, 자연 및 문화자원의 보존, 고용구조의 발전, 교육기회의 증가 등을 꼽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시설 및 하부구조에 대한 과밀이용, 사회경제적 불안, 문화적 전통과 자연환경의 훼손 등을 들고 있다. 관광의 이러한 兩面性은 결국 관광지주민에게 있어서는 관광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의 측면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관광을 지역사회발전에 대해 기여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입장들은 대부분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수단으로서 1) 지역사회의 소득구조 개선, 2) 고용기회의 증대, 3) 관광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다변화, 4) 낙후된 지역개발, 5) 稅入의 증대, 6) 지역이미지의 개선 및 인지도 상승 그리고 외부자본 유입, 7) 지역하부구조의 개선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브라이든」(Bryden)의 연구에서 보듯이 관광으로 인해 고용, 소득증대 등 어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은 발생하지만, 그러한 경제적 편익을 누리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다. 이를테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소비형태가 변화되는 한편 관광지의 개발 및 관리운영면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외부자본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결국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외부의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다른 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³⁾

2) WTO, *Risk of Saturation or Tourist Carrying Capacity overload in Holiday Destinations*, 1983.

3)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주민의 관광의식조사」, 1987, pp. 112~113.

한편 지역사회의 발전이란 명목하에 관광개발이 초래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사회문화적 갈등이다. 세계관광기구(WTO)의 보고서⁴⁾에 의하면 관광종사자와 비종사자간의 소득격차로 인한 주민의 양극화 현상, 가족구조의 파괴, 토착문화의 소멸, 문화의 상업화, 유물·유적지 등의 훼손, 하부구조의 체증 등이 관광의 부정적 산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피잠」과 「밀맘」(Pizam & Milmam)의 연구⁵⁾를 비롯하여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열거할 수 있으며,

- 1) 사회구조의 변화로서 정치적·경제적인 권력구조의 변화, 계층분화, 전통사회와의 갈등, 지역사회 성격 및 이미지 변화
 - 2) 인구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
 - 3) 가족구조의 변화로서 핵가족화, 친족제도의 약화, 여성의 지위향상, 자녀에 대한 통제력 약화, 가정파괴, 이혼율 증가 등
 - 4) 범죄증가, 도박·매춘의 성행 등
 - 5) 교통체증, 각종 공공시설 이용의 체증 등과 같은 하부구조의 과밀
 - 6) 문화변동에 따른 문화적 표류현상
 - 7) 주민가치관의 혼란, 미풍양속의 쇠퇴
 - 8) 소비패턴의 변화, 모방·사치 등 전시효과의 증가
 - 9) 고유문화를 상품화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문화의 상품화
- 이밖에도 언어·종교의 변화, 전통문화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2. 觀光地住民이 知覺하는 觀光影響

관광영향이란 관광지주민과 관광객들간의 상호접촉으로 출현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코헨」⁶⁾, 「로빈슨」 및 「피잠」 등은 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관한 접근방법으로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관광지주민들의 행태적 특성 및 지역사회와 관광객들간의 교호작용에 의한 상호효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⁷⁾

이것은 어떤 지역이 관광지로 개발되고 나서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변화해 가는 과정에서의 장기적인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지역주민의식과, 특정관광지에서의 관광객과 관광지주민

4) WTO,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ourist Movements*, 1981.

5) Abraham Pizam and Ady Milmam, "The Social Impact of Tourism", *Tourism Recreation Research*, 11(1), 1986. p.29.

6) Erik Cohen, "Toward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Tourism", *Social Research*, 39(1), 1972.

7) Alister Mathieson and Geoffrey Wall, *op. cit.*, p.137.

자의 접촉이 지역주민의 태도에 따라 동태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는 두 가지 측면이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연구의 근간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초 관광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그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지역주민의 의식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지역내에서도 異質的인 사회제도나 문화의 침투로 충분히 독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인지할 만한 변화요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매치슨」과 「월」(Mathieson & Wall)⁸⁾은 「독시」(Doxey)가 1976년 「바베이도스」와 「나이아가라」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忿怒指數」(irritation index)화한 것을 이용하여 관광으로 인한 사회적 影響을 평가하고 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① 관광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관광개발에 열성적이며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행복감에 젖게 되고, ②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주객간의 관계가 공식화되어 관광객들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③ 이와 같은 非情的인 상호관계가 지속되어 관광산업 자체가 일정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분노의 단계로 접어들고, ④ 그러한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관광객들의 행동 그 자체를 죄악시하고 공공연하게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게 되는 등 관광객들을 적대시하게 되어 관광객에 대한 반감이 그 절정을 이루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실상황에 체념하고 말게 된다고 하였다.⁹⁾ 「독시」(Doxey)는 바로 이러한 현상이 관광에 대한 수용사회(host community)의 영향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이러한 단계별 변화는 측정상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와는 다른 시각이 관광지 지역단위 연구에서 고려될 수 있다. 즉, 관광지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한 사람들의 의식구조이다. 관광지의 모든 지역주민이 관광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테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바람직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생활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그들의 인내정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광영향을 관광지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로서 「밀맘」과 「피잠」(Milnam & Pizam)은 관광을 통해 경제적 편익의 확대를 기대하게 되고 이러한 편익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관광의 사회적·환경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브로엄」과 「버블러」(Brougham & Butler)¹⁰⁾는 관광지주민의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관광객과의 접촉수준,

8) *Ibid.*, p. 138.

9) Robert Cleverdon & Anthony Edwards, *International Tourism to 1990*, Massachusetts : ABT Associates, 1982, p. 188.

10) J. E. Brougham and R. W. Butler, "A Segmentation Analysis of Resident Attitudes to Social Impact of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7(4), 1981.

거주연한, 연령, 언어 등의 각 개인별 특성의 차에 따른 모델의 실증적 검토를 시도하였으며, 「퍼듀」와 「롱」, 「알렌」(Perdue, Long & Allen)¹¹⁾ 등은 관광으로부터 얻는 편익변수를 통제 한 후, 특정 관광개발정책 또는 추가관광개발을 지지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관광영향의 긍정적 인식부분을 발견하였다. 다만 그들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갖는지,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피어스」(Pearce)¹²⁾ 는 관광지주민의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본 원인은 “사회적 비대칭성”(social asymmetry)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매치슨」과 「월」(Mathieson & Wall)¹³⁾ 은 관광객과 관광지주민간의 관계는 불균형적, 비형평성적 관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각과는 달리 「압」(John Ap)¹⁴⁾ 은 관광지주민과 관광객간에 교호작용이 존재한다고 보고 상호간 이점을 배우고 줄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이로온 관광객을 무조건 배격하고 감정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광지주민과 관광객간의 비대칭적 또는 불균형적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관광객 유형에 따른 관광지주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다.¹⁵⁾ 즉, 관광객의 지역 지각의 폭이 넓을수록 지역사회를 이해하기보다는 관광객 자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지역사회를 보려하므로, 이러한 유형의 관광객들이 늘면 늘수록 지역사회의 통제능력이 점차 상실 된다는 것이다.

흔히 관광산업을 지역문화의 보호를 위해 통제할 것인지 또는 장려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경우가 많다. 즉, 발전전략으로서 대량관광을 선택하는 경우와 지역의 보호를 위해 대량관광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라는 선택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관광객의 숫자가 많아진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대량관광과 같은 제도권 관광하에서는 오히려 「觀光專用地域」(tourism enclave)이 형성될 수 있다. 이들 대량관광객은 관광특성상 지역에 대한 이해에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방문목적에 따라 관광전용지역만 오간다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¹⁶⁾

따라서 관광에 대한 영향인식 관계가 시간적 흐름의 과정에서나 관광객의 숫적 증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초점은 관광영향의 인식이 관광지주민의 관광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광객과의 접촉량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 11) Perdue, Long and Allen, "Resident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1990.
- 12) John A. Pearce II,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82, p. 85.
- 13) Alister Mathieson and Geoffrey Wall, *op. cit.*, p. 138.
- 14) John Ap,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A(4), 1992.
- 15) 한국관광공사, 전게서, pp. 141~142.
- 16) 상게서, p. 143.

느낌의 정도에 따라 관광에 대한 기대감 역시 달라지고 이에 따라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의 평가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관광지주민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의 인식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관광지주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우선 직업의 관광 직·간접 관련성의 유무,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경험정도 등 경제적 의존·비의존 형태에 따라 관광영향을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객들과의 접촉정도를 알 수 있는 관광지와 거주지간의 근접성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관광지와와의 근접성이 높을수록 관광영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이 높으며, 근접성이 낮을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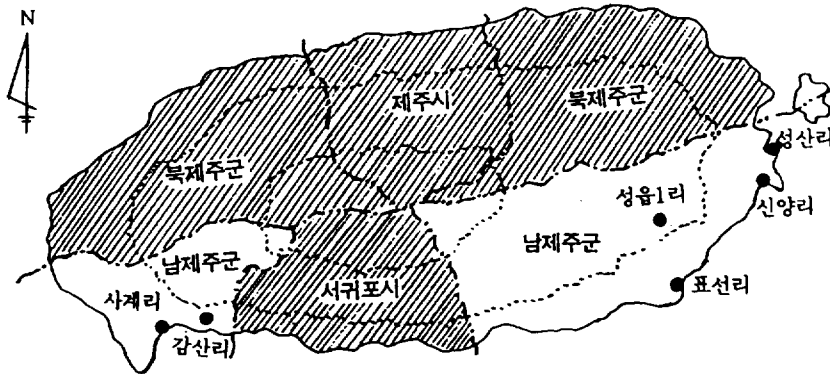
Ⅲ. 研究對象地의 社會·經濟實態 및 觀光動向

1. 研究對象地의 社會經濟實態

본 연구에서는 남제주군 관내 6개 리단위 마을을 연구대상지로 설정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마을의 경우 마을에 뿌리를 둔 토박이가 많아 地緣性을 따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내에 관광명소가 입지하므로 해서 어떠한 주민들이 관광영향을 지각하기 쉽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아래〔그림〕처럼 위치한 이들 마을은 각각 나름대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실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¹⁷⁾

〔그림〕 研究對象地로서 調査마을들의 位置



17) 이 실태묘사의 상당부분은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시 마을의 里長 또는 개발위원장 등을 접촉하여 면담·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 정리한 것임.

(가) 沙溪里

안덕면 사계리에는 총면적 7,904ha에 700여 가구, 2,600여명의 주민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대전동, 송죽동, 용해동 등 3개의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계리는 마을의 설촌에 대해 뚜렷이 전해오는 전설은 없다. 다만 1560년경에 김해 김씨의 성을 가진 이가 자은골에 농막을 지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설과 1630년경 사계, 덕수, 동·서광을 포함하는 백단리(白丹里)에서 분리되어 금물로리(金勿路里)라는 里名을 갖게 되었다는 설 등이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사계리가 있기까지는 관광이 큰 몫을 했다. 특히 이 마을의 알려진 관광명소로는 용머리와 산방산이 있다. 산방굴사에서 내리막길로 해안을 향해 내려가다 보면 「하멜표류기념비」를 지나 바다와 맞닿아 있는 용머리 해안의 절벽에 이른다. 또한 산방산은 금장지(禁葬地)로 불리는 곳으로 「瀛州 10景」 중의 하나이다. 산방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암벽식물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학술면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이다.¹⁸⁾

그러나 이렇게 관광지로 유명한 사계리이지만 주산업은 농업이 80%이고 어업이 10%로 농·어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인구는 0.5%에 지나지 않는다. 주업인 농업에서 주로 차지하고 있는 생산물로는 마늘과 감자가 있다. 그 외 옥돔잡이나 해녀收入은 고소득으로 마을의 농가소득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사계리를 알리는 데에는 한 몫 했지만,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부터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한 점에 대해 마을주민들은 “관광객의 유형이 체류형이라면 민박, 식당 등의 업종이 활성화되어 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나,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경유지에 불과해 소득에 변화가 없으며 관광객을 주민 서로가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해 주민간의 갈등도 심화했다”고 밝힌다. 또한 “토끼마을에 전분공장이 생겨서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해안에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동네 해녀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한다.

이러한 관광객 유치경쟁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 환경오염 등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이다. 산방산 주변의 1평당 땅값은 10만원이고 도로주변은 1평당 60만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반면, 개발이 저조한 관광지인 까닭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나) 柑山里

행정구역상으로 안덕면에 위치해 있는 감산리는 인구가 1,070여명으로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다. 주민들의 90%가 감귤농사를 짓고 있고 그 외에는 감자농사를 짓고 있다. 주민들 중에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안덕계곡에 연관된 관광사업에 종사하기보다 오히려 중문관광단지에 취직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18) 월간 관광제주사, 「월간 관광제주」, 1988년 10월호, pp. 45~47.

이곳의 관광자원으로는 안덕계곡이 있다. 하지만 안덕계곡이 지정관광코스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관광지의 특성이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은 채,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산리는 관광지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농·어촌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도 감귤농사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유명한 안덕계곡 주변의 자연환경은 관광객들에 의해 오염되었다기보다 주민들이 버리는 생활하수때문에 많이 오염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안덕계곡 주변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0여명으로 구성된 마을청년회가 환경보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덕계곡이 지정관광코스에서 제외되어 관광지로서 아무런 혜택이 없자 이곳 마을주민들은 안덕계곡은 있으나마나 한 곳이라며,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원도 충분하지 않으니 차라리 예전처럼 주민들이 목욕이나 빨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장하는 형편이다.

(다) 城山里

성산리에는 796가구가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총인구는 2,800여명이고 남녀의 비율은 여자가 1%정도 많아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55%가 외지인으로,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외지인이 많다. 또한 성산리에는 모두 15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중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5개이며, 다른 점포도 대부분이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며 경영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수산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주로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농사는 소규모로 하고 있으며, 특작물로 양배추, 파슬리, 유채 등을 재배하고 있다.

성산리의 발전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고급숙박시설과 해양스포츠시설 중심의 위락시설을 도입하여, 기존의 성산일출봉과 연계해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철새도래지인 오조리지구의 적극 보존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중에는 아직까지 관광종사자가 거의 없고 겨우 2~3명 정도라고 한다.

「瀛州 10景」 중의 하나인 성산일출봉이 관광지가 되면서 주변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러한 그린벨트로 인해 주민들은 집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땅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또한 일출봉 주변의 땅이 대부분 郡소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출봉 주변의 상가는 대부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은 단지 임시적인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다.

한편 성산리의 총면적 중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1.32%(사유지 중 점유율 39.67%)로 조사되고 있다.¹⁹⁾

(라) 新陽里

신양리는 성산읍에 속해 있다. 290여 가구에 주민은 약 1,300여명 정도로 남자 비율이 45%, 여자 비율이 55%로 여자 비율이 10%가량 많으며 65세 이상이 160명이나 된다. 주민들은 半農半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주로 감귤농사를 하고 있으며 양배추도 소수 재배한다.

신양리에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으며 해수욕장내에 보드세일링 훈련장이 있다. 해수욕장 백사장의 길이는 300m, 너비가 80m 평균수심이 1m 정도이다. 해수욕장은 뚝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의 임대는 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은 마을로 환수된다.²⁰⁾

신양리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락시설이나 레저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신양해수욕장에는 매년 2,000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마을주민들 중 관광종사원은 거의 없으며 관광사업에 대한 참여도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마을에는 자본여력이 없기 때문에 郡이나 道의 도움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한다.

마을에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현재 절대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자연녹지지를 빨리 풀고 도시계획을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방법만이 신양리를 가장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마) 城邑1里

성읍 민속마을은 남제주군 표선면에 속해 있는 산간마을이다. 해안마을인 표선리에서 약 8km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읍리는 행정구역상 성읍1리와 성읍2리로 구분되고 있다.

성읍1리는 표고가 125m이며, 성읍2리의 표고는 210m이다. 성읍1리는 서상동·서하동·동상동·동하동·서동으로 나뉘어지며, 32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데 주민수는 1,400여명 정도이다. 남녀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젊은층이 30~40%로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 젊은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마을주민들 중에는 택시기사,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제주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19) 제주도법도민회, 「도민의 함성」, 1993. 12., p. 167.

20) 남제주군, 「남제주의 문화유적」, 1992. p. 163.

많다고 한다. 현재 성읍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또는 식당에 종사해 일을 하고 있어 실업자는 거의 없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과수원을 운영하거나 주로 당근과 감자를 재배하고 있으며, 소수지만 깨나 유채 등도 재배하고 있다.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성읍이 관광지로 지정된 후 농사일과 더불어 70~80%정도가 관광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사업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은 그전에 농사만 지었던 때와는 달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 의식수준이나 문화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성읍2리는 성읍1리에서 3km 남짓 올라간 곳에 위치해 있다. 구렁팓과 안밭의 두동네로 이루어져 있고, 구렁팓 동쪽에 안밭과 성읍목장이 있다. 현재 성읍2리에는 60여 가구, 300여명이 산다.²¹⁾

성읍민속마을의 설촌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충렬왕때 老木이 우거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13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읍리는 제주도 중산간 마을의 특징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마을로 유형·무형의 많은 문화유산이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옛마을 형태의 민속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어 「민속마을」로 지정·보호되고 있다.²²⁾

유형의 문화유산으로는 이 지역 특유의 民家群을 비롯하여 향교, 돌하르방, 城地, 古阜 등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1980년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후, 그 중요성이 커져 1984년 6월 7일 국가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²³⁾

제주도관광협회가 정한 정기관광코스상의 관람지로 지정된 후 마을이 부산스러워졌으나, 민속보존지역이라 집수리나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신청을 하고서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한다.

한편 성읍1리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 생활수준이 전보다 향상된 데 반해, 성읍2리는 성읍목장을 중심으로 해 축산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관광하고는 거리가 멀어 관광의 혜택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바) 裵善里

표선면 面소재지인 표선리는 1,70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표선리의 주민은 4,100여명인데 여자가 2,100여명, 남자가 2,000여명으로 여자가 100여명이 많고, 20세 이상이 2,895명이다. 주민들은 농업·어업·상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중에서는 감귤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

표선리의 設村 과정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전 몇몇 사람들이 속칭 「윗말캐미」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의 위치로 확장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름은 「윗모울」이었다.²⁴⁾

21) 김영돈,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89, p. 31.

22) 남계주군, 전계서, p. 30.

23) 上同

24) 제민일보, 1995년 3월 2일.

표선리 앞 해안가에는 약 8만여명에 이르는 표선해수욕장이 있으며, 여름철이면 5,000여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이 몰려들어 피서를 즐기고 있지만 아직은 미개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인근 표선리 40번지 일대 15만9,000평에는 제주민속촌이 입지해 도내 민속관광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표선리에 입지한 제주민속촌은 제주의 전통적 주거생활 양식을 한데 모아놓은 야외박물관이다. 이것은 1985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 중문관광단지, 성산해양관광단지와 함께 3대 관광단지의 하나로 지정되어 조성되었다.

제주민속촌은 46만㎡ 대지 위에 산촌·중산간촌·어촌의 초가들이 유형별로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관아건물, 장터, 무속신앙장소 등 모든 건물을 합치면 120여동을 헤아린다.²⁵⁾

이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표선리의 중심사거리에는 성읍민속마을과 제주민속촌을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상가와 유흥업소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위락시설은 많은데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서점 등이 극히 적어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2. 研究對象地의 觀光動向

연구대상지로 설정된 6개 리단위 마을의 관광동향을 파악할 자료는 극히 불충분하다. 다만 성읍1리의 경우를 제외하면 <표-1>에 제시된 마을소재 관광명소의 관람인원 및 관람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표-1>

調査마을所在 觀光名所の 觀覽人員 및 觀覽料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 관광명소 | 산방굴사 | 안덕계곡 | 성산일출봉 | 제주민속촌 | 신양해수욕장 | 표선해수욕장 |
|------|------|-----------|--------|-----------|---------|--------|--------|
| 1988 | 인원 | 837,000 | 28,000 | 934,000 | 246,000 | 3,841 | 4,225 |
| | 징수액 | 336 | 12 | 373 | 509 | - | - |
| 1989 | 인원 | 1,070,000 | 51,000 | 1,261,000 | 237,000 | 5,980 | 4,210 |
| | 징수액 | 416 | 467 | 481 | 467 | - | - |
| 1990 | 인원 | 859,000 | 26,000 | 1,313,000 | 310,000 | 15,290 | 7,720 |
| | 징수액 | 338 | 11 | 500 | 519 | - | - |
| 1991 | 인원 | 1,163,000 | 27,000 | 1,311,000 | 328,000 | 9,637 | 12,950 |
| | 징수액 | 459 | 12 | 509 | 581 | - | - |
| 1992 | 인원 | 1,173,000 | 18,000 | 1,344,000 | 307,000 | 8,000 | 8,000 |
| | 징수액 | 470 | 8 | 531 | 546 | - | - |
| 1993 | 인원 | 1,188,000 | 16,000 | 1,287,000 | 238,000 | 2,410 | 5,520 |
| | 징수액 | 484 | 7 | 507 | 448 | - | - |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94.

25)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p. 1039.

IV. 研究方法의 設計 및 標本의 特性

1. 標本設計 및 檢證方法

(가) 資料調查方法

본 연구의 자료는 조사대상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우선 설문지의 신뢰도(reliability)와 타당도(validity)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 6월 16일 30매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타당도(face validity)와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토한 후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조사대상자 추출의 경우 조사원²⁶⁾이 조사마을 세대별 가구대장의 일련번호를 보고 등간추출방식²⁷⁾으로 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한 후, 세대구성원 중 면담이 가능한 한사람으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조사는 1995년 6월 24일 ~ 6월 25일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설문항목에 근거하여 질문을 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지 가구전체의 1/10채집에 해당하는 총 378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조사원의 방문시 조사할 대상자가 없거나 또는 조사거부의 경우 조사편의상 가까운 이웃세대를 조사대상가구로 대체하였다.

<표-2> 調查마을別 調查標本數

| 조사지 | 조사마을 | 인구수 | 세대수 | 조사매수 | 마을소재 관광명소 |
|-----|------|--------|-------|------|-------------|
| 안덕면 | 사계리 | 2,608 | 771 | 77 | 산방산 및 용머리해안 |
| | 감산리 | 1,076 | 302 | 30 | 안덕계곡 |
| 성산읍 | 성산리 | 2,617 | 798 | 80 | 성산일출봉 |
| | 신양리 | 1,152 | 319 | 32 | 신양해수욕장 |
| 표선면 | 성읍1리 | 1,326 | 383 | 38 | 성읍민속마을 |
| | 표선리 | 4,209 | 1,205 | 121 | 표선 제주민속촌 |
| 합 | 계 | 12,988 | 3,778 | 378 | |

주 : 인구수와 세대수는 1994년말 기준임.

26) 조사원으로는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개발학과 2학년 재학생 12명이 동원되었음.

27) 박석희, 「관광조사연구기법」, 일신사, 1993, pp. 101~102. 및 유동근, 「마케팅계량분석」, 미래경영, 1994, pp. 122~124. 참조.

(나) 分析方法 및 過程

조사된 자료는 SAS통계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었다. 분석과정에서는 연구목적 및 방향에 따라 1단계로 조사표본의 기술적 통계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 변수의 빈도와 비율차를 산출하였으며, 2단계로 관광영향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Cronbach)의 α 계수를 이용하였다.²⁸⁾ 마지막 단계로 본 연구의 가설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지연성척도에 의한 관광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켄달」의 타우 상관관계 (Kendall' tau correlation) 검증,²⁹⁾ t검증 및 一元變量分析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집단간의 상호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던컨」의 복수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³⁰⁾

2. 調査標本의 記述統計의 特性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조사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3> 調査標本의 特性

| 변 수 | 구 분 | 빈 도 | 비율 (%) | 누적빈도 | 누적비율 (%) |
|--------|--------|-----|--------|------|----------|
| 성 별 | 남 | 179 | 47.4 | 179 | 47.4 |
| | 여 | 199 | 52.6 | 378 | 100.0 |
| 연 령 별 | 20대 이하 | 101 | 26.7 | 101 | 26.7 |
| | 30~40대 | 171 | 45.2 | 272 | 72.0 |
| | 50대 이상 | 106 | 28.0 | 378 | 100.0 |
| 학 력 별 | 국졸 이하 | 100 | 35.8 | 100 | 35.8 |
| | 중 졸 | 100 | 35.8 | 200 | 71.7 |
| | 고졸 이상 | 79 | 28.3 | 279 | 100.0 |
| 지 역 별 | 안 덕 면 | 107 | 28.3 | 107 | 28.3 |
| | 성 산 읍 | 113 | 29.9 | 220 | 49.2 |
| | 표 선 면 | 158 | 51.8 | 378 | 100.0 |
| 주택소유여부 | 자 가 | 288 | 76.4 | 288 | 76.4 |
| | 전 월 세 | 78 | 20.7 | 366 | 97.1 |
| | 기 타 | 11 | 2.9 | 377 | 100.0 |

주 : 학력수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응답을 회피한 무응답의 비율이 26.2%로서 다소 높은 편임.

28) Weisberg & Bowen, "An Introduction to Survey Research and Data Analysis", Freeman and Company, 1977.

29) 이종구, 「실험 및 조사자료분석을 위한 SAS의 이해와 활용」, 서울: 성원사, 1993.

30) 시스템공학센터, 「SAS 공개강좌 WORKBOOK」, 한국과학기술원, 1990.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지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은 「자연환경의 질」과 「물가수준」은 과거와 비교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질」, 「마을주민의 행태」 및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觀光影響變數의 特性

| 항 목 | 표 본 수 | 평 균 | 표준편차 |
|-------------|-------|-------|-------|
| 전반적인 마을발전 | 376 | 3.729 | 0.849 |
| 공공서비스의 질 | 369 | 3.439 | 0.898 |
| 자연환경의 질 | 373 | 2.721 | 1.001 |
| 교육환경의 질 | 370 | 3.089 | 0.814 |
| 마을주민의 행태 | 365 | 3.066 | 0.813 |
| 공동체 의식 | 370 | 3.114 | 1.011 |
|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 353 | 3.062 | 0.966 |
| 소득 기반 | 372 | 3.567 | 0.829 |
| 고 용 기 회 | 364 | 3.420 | 0.986 |
| 물 가 수 준 | 372 | 2.419 | 0.941 |

주 : 각 항목은 리커트(Likert) 5점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1은 아주 나빠짐, 2는 조금 나빠짐, 3은 보통, 4는 조금 좋아짐, 그리고 5는 훨씬 좋아짐임.

V. 實證分析 結果

1. 觀光影響變數의 信賴度 檢證

본 연구에서는 관광영향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항목)가 현상을 일관성있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란 어떤 측정도구를 동일한 현상에 반복적용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안정성 또는 정확성이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³¹⁾

즉, 응답자들이 각 항목에 대해 일관성있는 응답결과를 보일 경우, 측정의 內的 一貫性(internal consistency)이 높고 측정항목들이 동질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항목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크론바하」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가장 널리 쓰인다.³²⁾ 「크론바하」의 신뢰도계수는 0에서 1까지 변하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α 값이 0.75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하며 집단수준의 경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31) 고희화 외 2인, 「사회·행동과학 연구방법의 기초」, 서울:성원사, 1989.

32) 이종구, 전게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관광영향변수들에 대한 α 계수를 구한 결과,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 개별항목의 신뢰도는 0.8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항목에 대한 「크론바하」의 신뢰도계수도 0.89로 관광영향변수들은 좋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5> 觀光影響變數의 信賴度 檢證結果

| 항 목 | 신뢰계수 | 항 목 | 신뢰계수 |
|-----------|-------|-------------|-------|
| 전반적인 마을발전 | 0.913 | 공동체의식 | 0.935 |
| 공공서비스의 질 | 0.856 | 문화여가시설이용기회 | 0.917 |
| 자연환경의 질 | 0.876 | 소득기반 | 0.904 |
| 교육환경의 질 | 0.935 | 고용기회 | 0.856 |
| 마을주민의 행태 | 0.823 | 물가수준 | 0.857 |
| | | 전 체 : 0.892 | |

2. 地緣性尺度的 開發

地緣性(attachment level)은 출생지(birthplace), 혈통(heritage) 및 거주연한(years of residence)의 조합으로 정의된 바 있으며,³³⁾ 이들 변수를 바탕으로 토박이와 최근 거주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연성에 관한 각 항목은 2개 또는 3개의 서열척도(ordinal scale)로 측정되었는데, 혈통의 경우 부모의 출생지를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본인출생지와 부모출생지는 당해지역 출생여부(예와 아니오)의 2개 수준으로 그리고 거주연한은 9년 이하, 10~19년, 20년 이상의 3개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성의 잠재적인 차원을 파악하기 위해 3개의 지연성 항목변수, 다시 말해 출생지, 부모출생지 및 거주연한의 서열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거트만척도」(Guttman Scaling)를 적용하였다. 한편 주택소유여부도 검토되었으나, 설문조사결과 自家 및 전월세 이상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어 제외하였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출생지, 부모출생지 그리고 거주기간의 순으로 척도점수의 순위가 배열되었다.³⁴⁾

33) Seoho Um & John L. Crompton, "Measuring Resident's Attachment Levels in a Host Commun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6(1), 1987, pp. 27~29.

34) 상계논문, p. 28. 참조.

<표-6> 거트만尺度에 의한 地緣性 點數

| 점 수 | 본인 출생지 | 아버지 출생지 | 어머니 출생지 | 거 주 기 간 |
|-----|--------|---------|---------|---------|
| 4 | 예 | 예 | 예 | 10년 이상 |
| 3 | 아니오 | 예 | 예 | 10년 이상 |
| 2 | 아니오 | 아니오 | 예 | 10년 이상 |
| 1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10년 이상 |
| 0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9년 이하 |

<표-7>은 <표-6>에서의 거트만척도 점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거트만」(Guttman)은 적어도 再生産係數(coefficient of reproducibility)의 값이 0.90 이상이어야 좋은 척도임을 제안하였는데³⁵⁾, 본 연구에서의 재생산계수 값은 0.912로 나타나 지연성 척도가 분석에 이용될 수 있는 척도로 밝혀졌다.

또한 尺度係數(coefficient of scalability)는 도출된 재생산계수의 값이 각 응답에서의 기대된 限界頻度(expected marginal frequencies)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값이다. 이 지수는 적어도 0.60 이상이어야 좋은 척도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0.76으로 나타났다.

<표-7> 地緣性尺度 點數의 計算

| 변수 점수 | 본인 출생지 | | 아버지 출생지 | | 어머니 출생지 | | 거주기간 | | 합계 |
|----------|--------|-----|---------|-----|---------|-----|------|-------|-----|
|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9년이하 | 10년이상 | |
| 4 | 0 | 152 | 0 | 152 | 0 | 152 | 0 | 152 | 152 |
| 3 | 6 | 39 | 3 | 42 | 36 | 9 | 0 | 42 | 45 |
| 2 | 1 | 19 | 17 | 3 | 20 | 0 | 2 | 18 | 20 |
| 1 | 93 | 193 | 1 | 93 | 1 | 93 | 3 | 91 | 94 |
| 0 | 50 | 0 | 50 | 0 | 50 | 0 | 50 | 0 | 50 |
| 합 계 | 150 | 211 | 163 | 198 | 199 | 162 | 55 | 306 | 361 |
| 오 차 | 0 | 59 | 3 | 3 | 56 | 1 | 5 | 0 | 127 |

주: 지연성척도는 Guttman Scale에 의해 측정되었음.

- ◆ 재생산계수(coefficient of reproducibility) = $1 - 127 / (361 \times 4) = 0.91205$
- ◆ 최소한계재생산(minimum marginal reproducibility) = $(211 + 198 + 199 + 306) / (361 \times 4) = 0.63296$
- ◆ 퍼센트증진도(percent improvement) = $0.91205 - 0.63296 = 0.27909$
- ◆ 척도계수(coefficient of scalability) = $0.27909 / (1 - 0.63296) = 0.76038$

35) Weisberg and Bowen, "An Introduction to Survey Research and Data Analysis", Freeman and Company, 1977, p.188에서 재인용.

3. 研究結果의 解析 및 示唆點

(가)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의 分析

연구대상지 주민들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영향을 地緣性척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8>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

| 항 목 | 지연성 | 본인출생지 | 아버지 출생지 | 어머니 출생지 | 조사마을 거주기간 |
|-------------|---------|---------|------------|------------|--------------|
| 전반적인 마을발전 | 0.088* | -0.039 | -0.036 | -0.036 | 0.121* |
| 공공서비스의 질 | 0.029 | 0.003 | -0.003 | -0.012 | 0.098* |
| 자연환경의 질 | -0.095* | -0.096* | -0.097* | 0.029 | -0.103* |
| 교육환경의 질 | 0.022 | -0.072 | -0.028 | -0.088 | 0.044 |
| 마을주민의 행태 | -0.049 | -0.029 | 0.085** | -0.001 | -0.007 |
| 공동체 의식 | 0.035 | 0.013 | 0.003 | -0.045 | 0.045 |
|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 0.123* | -0.108* | -0.130* | -0.141* | 0.073* |
| 소득기반 | 0.045 | -0.029 | -0.008 | -0.024 | -0.023 |
| 고용기회 | 0.019 | -0.040 | 0.019 | 0.020 | -0.008 |
| 물가수준 | 0.018 | -0.020 | -0.019 | -0.042 | -0.011 |

주: 각 수치는 켄달의 타우 상관계수(Kendall's tau 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연성척도 및 조사마을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마을이 발전하였으며, 문화여가시설의 이용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연환경의 질」은 지연성, 출생지 및 조사마을 거주기간에 따라서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여가시설의 이용기회」는 지연성과 조사마을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나, 출생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나) 調査地別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의 分析

조사마을과의 지연성 정도에 따른 관광영향을 조사지 읍·면별로 비교해 보기 위하여 「켄달」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9>에서 보는 바 대로 「자연환경의 질」에 관해서는 안덕면과 성산읍 응답자들 모두 지연성이 강할수록 악화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경우 안덕면 응답자들은 지연성이 높을수록 관광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나, 성산읍 응답자들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한편, 표선면 응답자들은 지연성이 높을수록 과거와 비교하여 관광으로 인해 「문화여가시설의 이용기회」, 「소득기반」, 그리고 「고용기회」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9> 調查地別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

| 항 목 | 안덕면 | 성산읍 | 표선면 |
|-------------|----------|----------|--------|
| 전반적인 마을발전 | 0.128 | -0.081 | 0.121 |
| 공공서비스의 질 | 0.059 | -0.108 | 0.001 |
| 자연환경의 질 | -0.157** | -0.227* | 0.019 |
| 교육환경의 질 | -0.089 | 0.056 | 0.044 |
| 마을주민의 행태 | 0.038 | -0.078 | -0.047 |
| 공동체 의식 | 0.137** | -0.135** | -0.048 |
|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 0.087 | -0.019 | 0.141* |
| 소득기반 | -0.022 | 0.039 | 0.149* |
| 고용기회 | -0.058 | 0.031 | 0.194* |
| 물가수준 | 0.007 | 0.082 | -0.060 |

주: 각 수치는 켄달의 타우 상관계수(Kendall's tau 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다) 人口統計學的 特性別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의 分析

조사마을과의 지연성 정도에 따른 관광영향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0>에서 보는 바 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지연성이 높을수록 남자는 관광으로 인해 「고용기회」가 줄었다고 지각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지연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마을발전」, 「공공서비스의 질」, 「문화여가시설의 이용기회」, 「소득기반」, 그리고 「고용기회」가 증대되었다고 지각하고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자기 마을에 대한 관광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의 경우, 지연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마을발전」과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가 높아졌다는 긍정적 지각을 보였다. 반면 학력이 낮은 국졸 이하의 경우 지연성이 높을수록 「자연환경의 질」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보였으며, 고졸 이상에서는 「고용기회」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체의식」의 경우는 중졸 이상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는 「교육환경의 질」과 「마을주민의 행태」가 나빠졌다고 지각한 반면, 30~40대에서는 오히려 「교육환경의 질」이 더 높아진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환경의 질」에 대해 30~40대 응답자들이 물리적인 교육환경의 질에 관해, 그리고 20대 이하의 관광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영향에 주안점을 두고 응답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또한 50대 이상에서는 자연성이 높을수록 관광으로 인해 「문화여가시설의 이용기회」가 증대되었다고 지각한 반면, 「자연환경의 질」과 「물가수준」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

<표-10> 人口統計學的 特性別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

| 항 목 | 성 별 | | 학 력 별 | | | 연 령 별 | | |
|-------------|---------|---------|---------|---------|----------|----------|---------|----------|
| | 남 | 여 | 국졸이하 | 중 졸 | 고졸이상 | 20대이하 | 30~40대 | 50대이상 |
| 전반적인 마을발전 | -0.034 | 0.202* | 0.095 | 0.132* | 0.119** | 0.018 | 0.040 | 0.110 |
| 공공서비스의 질 | -0.054 | 0.111** | 0.089 | 0.033 | 0.081 | 0.110 | 0.029 | -0.078 |
| 자연환경의 질 | -0.109 | -0.088 | -0.171* | -0.094 | -0.075 | -0.081 | -0.050 | -0.179* |
| 교육환경의 질 | -0.009 | 0.085 | -0.035 | 0.013 | 0.015 | -0.138** | 0.118** | -0.074 |
| 마을주민의 행태 | -0.081 | 0.019 | -0.103 | 0.006 | 0.048 | -0.178* | 0.031 | -0.113 |
| 공동체 의식 | 0.081 | 0.059 | 0.084 | 0.109** | 0.183* | -0.128 | 0.089 | 0.081 |
|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 0.021 | 0.157* | 0.145* | 0.116** | 0.118** | 0.096 | 0.086 | 0.245* |
| 소 득 기 반 | -0.008 | 0.117** | -0.015 | 0.088 | -0.054 | 0.084 | 0.088 | 0.018 |
| 고 용 기 회 | -0.158* | 0.174* | -0.088 | 0.044 | -0.129** | 0.059 | -0.023 | 0.059 |
| 물 가 수 준 | -0.081 | 0.053 | 0.039 | 0.079 | 0.015 | 0.005 | 0.003 | -0.146** |

주: 각 수치는 켄달의 타우 상관계수(Kendall's tau correlation coefficient)이며, **는 5%, *는 10% 유의수준임.

(라) 人口統計學的 特性別 地緣性에 따른 觀光影響의 分析

연구대상지의 주민들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영향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해 보고자 t검증 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1>에서 보는 바 대로 연구대상지 주민들이 지각하는 관광영향은 「교육환경의 질」, 「마을주민의 행태」 및 「공동체의식」이 남녀간 평균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항목에서 남자의 평균값들이 평균 이하를 보인 반면 여자는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여자가 관광영향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력별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소득기반」의 경우, 모두 평균 이상을 보였지만 특히 중졸수준의 집단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공동체의식」의 경우는 국졸이하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나머지 집단에서는 평균 이하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마을이 발전되었지만 오히려 「물가수준」은 예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30~40대의 경우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마을주민의 행태」와 「공동체의식」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볼 때 표선면 응답자의 경우 「마을주민의 행태」와 「공동체의식」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보여 부정적인 시각을, 그리고 성산읍 응답자들은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덕면 응답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질」, 「공동체의식」 및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의 항목에서 다른 조사지역 응답자보다 관광영향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11> 人口統計學的 特性에 따른 觀光影響의 t檢證 및 一元分散分析 結果

| 항 목 | 성 별 | 학 력 별 | | | 연 령 별 | | | 거 주 지 별 | | | | |
|-------------|--------|----------|-------|--------|-------|--------|--------|---------|--------|-------|-------|-------|
| | | 남 | 여 | 국졸 이하 | 중졸 | 고졸 이상 | 20대 이하 | 30~40대 | 50대 이상 | 안덕면 | 성산읍 | 표선면 |
| 전반적인 마을발전 | 평 균 | 3.704 | 3.751 | 3.590 | 3.677 | 3.747 | 3.650 | 3.655 | 3.924 | 3.859 | 3.637 | 3.707 |
| | t또는 F값 | -0.540 | | 0.73 | | 0.73 | | 0.73 | | | | |
| 공공서비스의 질 | 평 균 | 3.384 | 3.490 | 3.126 | 3.541 | 3.351 | 3.408 | 3.429 | 3.485 | 3.664 | 3.148 | 3.487 |
| | t또는 F값 | -1.117 | | 4.98** | | 0.21 | | 9.66** | | | | |
| 자연환경의 질 | 평 균 | 2.618 | 2.615 | 2.773 | 2.630 | 2.857 | 2.690 | 2.796 | 2.632 | 2.617 | 2.745 | 2.776 |
| | t또는 F값 | -1.898 | | 1.08 | | 0.93 | | 0.86 | | | | |
| 교육환경의 질 | 평 균 | 2.983 | 3.187 | 3.125 | 2.949 | 3.158 | 3.030 | 3.060 | 3.196 | 3.159 | 3.156 | 2.994 |
| | t또는 F값 | -2.150** | | 1.25 | | 1.00 | | 1.45 | | | | |
| 마을주민의 행태 | 평 균 | 2.838 | 3.185 | 3.178 | 3.051 | 2.962 | 3.200 | 2.945 | 3.129 | 3.067 | 3.231 | 2.955 |
| | t또는 F값 | -2.939** | | 1.30 | | 3.52 | | 3.64 | | | | |
| 공동체 의식 | 평 균 | 2.965 | 3.244 | 3.152 | 2.727 | 2.919 | 3.218 | 2.958 | 3.265 | 3.604 | 3.134 | 2.757 |
| | t또는 F값 | -2.646** | | 5.18** | | 3.70** | | 24.79** | | | | |
|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 평 균 | 3.030 | 3.091 | 2.906 | 2.979 | 3.079 | 3.080 | 3.019 | 3.118 | 3.274 | 2.750 | 3.113 |
| | t또는 F값 | -0.595 | | 0.69 | | 0.33 | | 8.06** | | | | |
| 소득 기반 | 평 균 | 3.546 | 3.587 | 3.602 | 3.780 | 3.410 | 3.649 | 3.515 | 3.575 | 3.433 | 3.586 | 3.643 |
| | t또는 F값 | -0.479 | | 4.19** | | 0.82 | | 2.07 | | | | |
| 고 용 기 회 | 평 균 | 3.349 | 3.484 | 3.516 | 3.697 | 3.421 | 3.408 | 3.409 | 3.451 | 3.039 | 3.448 | 3.652 |
| | t또는 F값 | -1.310 | | 2.10 | | 0.07 | | 12.70** | | | | |
| 물 가 수 준 | 평 균 | 2.446 | 2.386 | 2.485 | 2.410 | 2.177 | 2.663 | 2.306 | 2.375 | 2.539 | 2.500 | 2.285 |
| | t또는 F값 | 0.510 | | 2.27 | | 4.74** | | 2.88** | | | | |

주: **는 5%. * 10% 유의수준임.

VI. 結論 및 示唆點

최근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 개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바, 그와 함께 관광영향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다각적인 평가가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지역발전의 선도부문으로서 관광산업의 육성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그에 걸맞지 않게 관광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관광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민여론 수렴작업이 종종 혼란에 빠진 채, 지속적인 관광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입장이 아닌 관광지주민의 입장에서 관광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남제주군 관내 관광명소가 입지한 6개 마을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1995년 6월 24일 ~ 6월 25일 양일간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과정에서는 먼저 본인출생지, 부모출생지 및 거주연한을 이용하여 「거트만척도」(Guttman Scaling)에 의한 지연성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켄달」의 타우 상관관계(Kendall's tau correlation) 분석, t검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연성척도의 경우 재생산계수(0.912) 및 척도계수(0.760)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관광영향변수(10개 항목)들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전체 신뢰도가 0.892로 분석됨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지 주민들이 지각하는 전체적인 관광영향은 「자연환경의 질」과 「물가수준」을 제외하고는 보통 또는 긍정적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연성척도에 따른 관광영향에서는 지연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마을발전」과 함께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가 높아졌지만 「자연환경의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지각되고 있다.

셋째,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의 조사지 읍·면별 비교에서는 안덕면의 경우 지연성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성산읍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선면의 경우는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소득기반」 및 「고용기회」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넷째, 지연성에 따른 관광영향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전반적인 마을발전」, 「공동체 의식」 및 「문화여가시설 이용기회」 항목에서 지연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지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의 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평균이하를 보인

반면, 여자는 평균이상으로 지각하고 있어 여자가 더 관광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마을이 발전되었지만 물가수준은 악화되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거주지별로는 성산읍과 표선면의 주민들이 관광영향에 대해 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 그 영향정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분석변수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본 연구에서 이용된 지연성척도는 향후 관광영향 연구에서 더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조사비용상 설문조사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 표본추출을 조사대상가구로 국한시킨 점.
- ② 띠단위 마을들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지연성이 높은 주민들에 의해 설문응답이 이루어진 점.
- ③ 학력수준에 대한 조사의 경우 응답회피에 따른 무응답의 비중이 높아 (26.2%) 분석결과가 현실과 괴리를 보일지도 모른다는 점.

그밖에 후속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의 물리적 환경요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기본적 심리상태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